



# 3월의

# 육계전망



**장민기**  
(본회 부회장  
버들농원 대표)

## 〈개황〉

전반적인 축산불황 속에 그중에서도 특히 육계 생산 양축가는 이제 거의 그로키 상태에 도달되었다고 보아진다.

2월 28일 현재의 수도권의 육계 생체가격은 드디어 550원을 밑돌게 되었다.

그렇다고 쉽게 오를 전망도 보이지 않으니 안타깝기 짝이 없다.

이제는 육계사육농가는 물론 부화장에서의 생산감축이 절실히 요구된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병아리의 실 생산수가 생산잠재력을 훨씬 웃돌고 있는 가운데 86년도에 들어와서는 그 폭이 점점 넓어져 지난 2월호에 필자가 추정한 생산잠재력보다 10~15% 이상이나 더 많은 육계 병아리가 실제로 생산되어, 예상했던 바 이상으로 큰 타격을 받게 되는 것 같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과감한 생산감축을 촉구하는 바이며 특히 부화장에서의 근원적인 생산감축을 간곡히 당부한다.

최악의 불경기를 도약의 발판으로 삼고 이 때를 잡아야 돈을 번다는 투기심리의 육계경영에 익숙해진 일부 농가는 서서히 입추준비를 서두르고 있다고 하니 불황은 예상외로 길어질 전망

표 1. 85~86 사료, 병아리생산수, 생산잠재력, 가격 비교

월	년 도	사료(천톤)		병아리 생산수 (천수)	잠재력 (천수)	가 격 (원/kg)
		전기	후기			
1	85	19.6	27.3	11,500	14,596	1,115
	86	21.0	32.9	14,500	14,500	966
2	85	19.6	29.8	12,000	14,519	1,050
	86	추23.5	추34.0	추15,000	15,200	740
3	85	22.7	33.1	13,000	15,164	750
	86	추25.0	추37.0	추16,000	16,500	추 650
4	85	23.4	35.5	14,500	15,719	870
	86				17,700	
5	85	25.9	37.0	15,500	18,809	1,048
	86				18,500	
6	85	28.6	39.0	16,500	17,000	870
	86				18,500	
7	85	27.9	43.6	16,000	14,500	950
	86				17,000	
8	85	25.2	34.6	14,500	13,000	1,100
	86				16,000	
9	85	20.6	36.9	12,000	12,500	840
	86				15,000	
10	85	20.0	36.1	11,500	11,000	714
	86					
11	85	21.0	31.6	11,000	11,000	831
	86					
12	85	23.1	37.6	12,800	11,500	950
	86					
계	85	277.6	422.1	160,800	169,307	
	86					

이다.

통계를 계속 관망하다가 육계전기 사료 생산량이 2만톤 정도에 머무를 때 입추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불황 장기화 예상

1) 표1에서는 85~86년도 육계사료에서 특수사료가 차지하는 양을 대충 파악 산입하여 육계사료의 증감사항을 알 수 있게 하였다.

2) 85. 12월의 육계 전기사료 23,000톤은 1,500만 마리의 육계병아리를 기를 수 있는 전기사료의 양이다. 이런 측면에서 검토할 때 년중 가장 비수기인 계절에 얼마나 많은 병아리가 길러졌는가를 잘 나타내 주고있다. 따라서 육계생체가격이 550원 미만이 형성되었음을 당연지사로 볼 수 밖에 없겠다.

3) 86. 1월에 육계전기사료가 약간 줄어든 듯 하나 이는 신정연휴로 인해 85년 12월에 약간 앞당겨 생산이 되었다고 간주할 때 12월과 1월의 양을 합하여 만으로 나눈 것 보다는 약간 많을 것으로 보아야 타당할 것으로 필자는 12월에 21,500톤, 1월엔 22,600톤 정도의 사료가 소비되었을 것으로 간주할 때 12월엔 1,435만수, 1월엔 1,510만수의 육계병아리가 길러졌을 것으로 판단된다.

4) 2월 20일경까지만 해도 육계 병아리는 계속해서 잘 팔려나갔고 2월말일을 기점으로하여 부화기에 입란되어있는 종란까지 산입하여 발생되는 병아리를 육계농가에서 다 기른다고 가정할 때 필자의 소견으로 1일 생산수 기준으로 비교하면 1월보다는 2월 이후가 다소나마 많을 것으로 여겨져 불황은 장기화할 조짐이 보인다.

이제 급한 상황이라 여기고 3월 1일부터 입란을 조절한다 하여도 육계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5월 중순 이후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생산측면 만을 고려할 때.....)

5) 위의 분석 등이 독자의 육계경영 지침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본회 육계분과위원회는 매월 27일 오후 2시에 개최되며 여기서는 육계산업 전반에 관한 심도 깊은 토의를 한다. 관심있는 양축가의 참여를 환영하며 특히 육계 3만수 이상의 대군 양축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라고 있다.

◎ 협회에서는 86년도를 양계산물 소비촉진 홍보의 첫해로 정하고 3월부터 계속적으로 소비 홍보사업을 펼쳐나간다. 모든 육계농가가 적극참여하여 우리의 생산물을 바르게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이 소비확대사업에 보다 많은 협력으로 큰 힘을 모아야하겠다. ▮

표 2. 표본 10개 사료메이커의 생산량 순별 비교

사료	월 순 년도	10			11			12			1(85·86)			2(85·86)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전 기	84	2,337	2,461	2,524	2,328	2,173	2,264	1,946	2,425	2,865	1,837	2,283	3,205	2,064	2,460	2,080
	85	2,240	1,979	2,567	2,282	1,858	2,442	1,749	1,903	2,397	1,631	1,877	2,016	1,680	1,714	
후 기	84	3,216	3,214	3,145	2,975	2,979	3,000	3,245	3,472	3,517	2,375	2,370	3,247	3,121	3,151	2,739
	85	3,190	3,054	2,852	2,299	2,311	3,044	2,040	2,510	3,418	1,637	2,119	2,726	2,184	2,866	
계	84	5,553	5,675	5,669	5,303	5,152	5,264	5,191	5,897	6,382	4,212	4,653	6,452	5,185	5,611	4,819
	85	5,430	5,033	5,419	4,581	4,169	5,486	3,789	4,413	5,815	3,268	3,996	4,742	3,864	4,580	